

경험표집법(ESM)을 통해 본 음악영재의 삶의 질

이 현 주

성균관대학교

최 인 수

성균관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영재들이 경험하는 일상을 통해 그들이 실제 인지하는 삶의 질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삶의 질에 대해 측정하기 위해 일상 경험을 2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하나는 외적 경험으로, 주된 활동, 함께한 사람에 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내적 경험으로, flow, 정서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음악영재들의 삶(일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시간과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고, 그 시간에 재능 발현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긍정적인 내적 경험을 하고 있었다. 둘째, 음악영재는 일상에서 일반청소년에 비해 긍정적인 내적 경험을 보고하고 있었다. 셋째, 다른 활동을 할 때보다 자신의 재능과 관련된 음악활동을 하면서 더 깊이 flow에 빠지고,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고 있었다. 넷째, 음악활동을 하면서 깊은 flow를 경험하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이는 행복감이라는 것이 flow 경험과 동시에 오지 않는 특징을 가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새로운 연구방법, 즉 경험표집법(ESM)의 사용으로 일상에 대한 풍부하고 심도 깊은 자료를 제공하고,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 음악영재들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상담이나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경험표집법(ESM), 음악영재, 삶의 질, 외적 경험, 내적 경험

I. 서 론

영재(gifted)에 대한 호기심은 ‘사람들은 왜 서로 다른가’, 즉 개인차에 대해 처음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재의 정의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개인차’라는 의미는 인간이 가진 능력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김태련 외 역, 2004; Jones, 1956; Witty & Lehman, 1930). 이렇듯 영재를 바라보는 대중의 관심은 그들이 가진 뛰어난 능력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관심은 영재성의 정의를 살펴보면 더욱 잘 드러난다.

Terman(1925)은 영재성을 ‘지능검사 상에서 고득점을 나타낸 능력’으로 정의했으며, Newland(1976)는 ‘어려운 개념을 빨리 이해하고, 추상적인 사고를 효과적으로 다루며, 일반화를 빨리하고, 특이한 그러나 확실한 개념과 접근 방법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최근의 영재연구 역시 영재성(giftedness)이나 재능(talent)에 대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물론 영재가 가진 인지적인 능력뿐 아니라 동기, 환경과 같은 부분이 포함된 것들도 있다(박성익 외, 2003). 하지만 영재성의 정의에서 언급되는 동기나 환경의 주된 역할은 영재들이 가진 잠재능력을 발휘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로서만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영재연구의 경향은 1957년 스푸트닉 충격(shock of Sputnik)의 여파로 미국에서 영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을 미국이 아닌 소련에서 발사했던 이 사건은 미국에게 정신적 충격과 긴장을 주었으며, 이는 국가의 인재 공급을 증가시키려는 교육학자들의 열망과 결합되면서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을 고조·발전시킬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재교육과 연구는 국가에 필요한 인재 양성이라는 취지 아래, 학문적 영재, 특히 수학이나 과학분야의 영재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그들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킬 수 있도록 교육학적 관점에서 주도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영재연구=영재교육연구’로 취급하는 경향이 생겨났으며, 이 연구들이 주장하는 영재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박성익, 2002). 첫째, 개인적인 측면에서 영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분야의 잠재능력을 계발시킬 수 있는 교육적 배려를 통하여 그들이 자아실현을 이루는데 도움을 준다. 둘째, 교육적·사회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지식을 소모하는 인간이 아닌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지식을 창의적으로 창출해낼 수 있는 영재들을 육성해 냄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셋째, 국가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발전과 번영의 원동력이 되는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개발하여 국가의 미래에 투자한다. 하지만 이러한 영재교육의 3가지 목적 모두 영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계발시켜 그 산물의 혜택을 보고자 하는 사운(邪雲)이 드러나 있다. 물론 첫 번째 목적의 표면적인 의미는 영재 자신의 자아실현을 이루게 하는 것이지만, 그것 역시 그들의 정서나 만족감, 행복과 같은 진정한 삶의 질적인 차원이 아닌 그들의 잠재능력을 계발하여 발현시키면 자아실현이 이루어진다는 연구자들의 가정 하에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영재교육의 첫 번째 목적에 대한 논란에는 언어학에서 파생된 2가지 개념¹⁾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는 외부적(etic) 관점이나 혹은 내부적(emic) 관점이나에 관한 것이다. 음성학적(phonetic)에서 나온 ‘외부적’이라는 용어는 다른 관찰자에 의해서 검증될 수 있는 과학적인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음소학적(phonemic)에서 파생된 ‘내부적’이라는 것은 특정한 문화의 내부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문화의 행위자 자신이 개념적 범주를 통하여 대상을 인식함으로써 갖게 되는 관점을 의미한다(이종규, 2006; 한경구 외 역,

1) 음성학(音聲學)이란, 누구든 훈련을 받은 사람이면 이해할 수 있도록 음성에 의한 소통을 기록하는 표준화된 체계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고, 음소학(音素學)이란, 특정 언어의 화자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소리의 단위를 연구하는 것이다.

1994). 즉, 영재는 자신의 잠재력 계발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이루고 만족한다는 가정 하에 그들의 잠재력 발현을 목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주장은 ‘외부적 관점’에 의한 것이고, 영재 자신이 그들의 삶 중 어떠한 상황에서 진정 행복하고 질이 높은 경험을 하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내부적 관점’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삶의 질, 즉 ‘행복한 삶’이란 인간의 삶이 좋거나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물질적·신체적 조건뿐 아니라 문화적·사회적 환경과 개인의 심리적 상태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삶의 질은 안녕감(well-being), 삶의 만족도, 행복 등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삶의 질에 대한 정의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조명한 외, 1994, 재인용; Diener, 1984). 첫 번째는 삶의 질이 외적 기준이나 조건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여기서의 행복이란 주관적인 심리상태가 아니라 바람직한 속성 및 환경적 조건을 소유한 삶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삶의 질은 소득, 구매능력, 교육수준, 여가시간, 건강상태 등의 사회경제적 지표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리는 인지적 평가를 중시하는 입장으로, 여기서의 행복이란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상태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삶의 질은 삶의 만족도를 의미한다. 세 번째는 한 개인의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여기서의 행복이란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긍정적인 감정이 우세한 심리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주관적인 안녕감이란 긍정-부정의 연속선상에서 한 개인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지칭하는 개념인 것이다(Okun, 1987). 삶의 질에 대한 정의에 따라 이를 연구하는 방법도 나누어진다. 첫 번째 정의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표를 조사해 평가하는 방법과 두 번째와 세 번째 정의에 따라 사람들이 느끼는 만족감과 긍정적 정서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이 2가지, 객관적·주관적 지표를 모두 고려한 포괄적 개념으로서 삶의 질을 평가하는 방법도 있다. 이 모든 방법들은 자료를 양화(量化)하여 차이를 분석하는 양적 연구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양적 연구가 지금까지 삶의 질을 평가하는 주된 역할을 맡아왔다.

하지만 삶의 주관적 지표들은 연구대상이 속한 환경을 떠나서 평가된다면 그 삶에 대한 온전한 평가라고 할 수 없다. 즉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삶에서 어떠한 정서를 느끼는지에 대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만들어서 일정한 시간에 실시하는 것은 삶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될 수 없다. 삶의 질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그들의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활동이나 환경에서 어떠한 만족감과 정서를 느끼는지 알고 있어야 내릴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연구대상이 성인이 아닌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면, 인지나 정서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일상적인 매일의 활동들에 가깝게 다가가서 이를 기술하고 평가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Bronfenbrenner, 1979; Savin-Williams, 1987).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방법으로는 집중관찰법, 무작위순간관찰법, 시간일지법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거나 관찰자의

존재로 인하여 일상의 자연스러움이 방해를 받으며, 연구자가 원하는 모든 상황을 관찰할 수 없고, 회상에 의한 기억의 오류가 생기는 등의 단점들이 있다. 그러나 Csikszentmihalyi 외(1977)가 개발한 경험표집법(Experience Sampling Method: ESM)은 기존의 연구방법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보완한 방법으로, 호출기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에 관한 양적, 질적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김기욱 외, 2005; 최인수 외, 2003).

이에 본 연구자는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은 음악영재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상 속 각각의 경험에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해 하는지 삶의 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어린 시절 전문교육의 절대적 필요성을 강조하는 음악교육의 특성상 매우 이른 시기부터 고된 연습과 훈련에 노출되어 있던 음악영재들이 청소년 시기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느끼는 경험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과학분야에 편중되어 있던 영재연구의 관심을 예술분야로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삶의 질에 대한 연구 측면에서도 설문지를 통한 양적 연구나 관찰자가 개입하여 직접 관찰하는 질적 연구가 아닌, 새로운 연구방법, 즉 ESM의 사용으로 일상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 음악분야 영재들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그들을 상담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대상은 Z예술(대)학교 예술영재제도²⁾를 통하여 선발된 학생들 중 만 13~19세까지의 청소년 음악영재 33명으로, 남학생 10명(30.3%), 여학생 23명(69.7%)이 포함되었다. 그들의 평균연령은 16.1세이며, 전공분야는 관악(2), 건반(6), 현악(22), 타악(1), 작곡(2)이었다. ESF 작성은 1학기 중 1주일(7일)을 표집하여 시행되었고, <표 1>은 ESM 과정에서 중간 손실로 인해 누락된 자료를 제외한 현황을 정리한 것이며, 처음 표집된 연구대상보다 중간 손실은 많았지만 체계적 손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 1> 연구대상 표집 및 최종 수거 현황

	성별		연령							전체
	남	여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표집	17(34.0)	33(66.0)	3(6.0)	6(12.0)	7(14.0)	11(22.0)	11(22.0)	4(8.0)	8(16.0)	50
수거	10(30.3)	23(69.7)	2(6.1)	6(18.2)	4(12.1)	7(21.2)	8(24.2)	2(6.1)	4(12.1)	33

빈도(%)

2) Z예술(대)학교는 국립예술종합학교로서 예술분야의 특성을 살려 전문예술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교이다. 특히 예술영재제도는 재능이 조기에 발견되는 분야 특성을 살려 전문가들에 의해 고교 졸업 이전에도 예술능력 수준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된 학생들을 선발하여 대학을 다닐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본 제도에서 선발된 예술영재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세계적인 콩쿠르를 통해 그 능력을 입증 받고 있다.

2. 연구도구

가. 경험표집양식(Experience Sampling Form: ESF)

본 연구는 음악영재의 일상 경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ESM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연구자가 일정한 횟수의 신호를 보내고, 연구대상자들이 신호를 받은 순간의 상황이나 감정 등을 미리 나누어준 질문지에 기록하면, 일정한 기간 후에 그 질문지를 수거하여 그 내용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다(Hektner et al., 2007). 이때 연구대상자에게 나누어준 질문지를 경험표집양식(Experience Sampling Form: ESF)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ESF는 미국의 시카고대학에서 개발한 양식을 김기옥 외(2005)가 한국의 정서에 맞게 수정한 것을 기초로 음악영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종본이 완성되었으며, 일상에 대해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된 ESM에서는 1주일 동안 하루 8번의 신호(총 56회)를 받아 ESF를 작성하도록 요구되었다.

3. 용어의 조작적 정의

가. 외적 경험

본 연구는 음악영재들의 일상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서, 이들이 경험하는 생활을 외적 경험과 내적 경험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이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외적 경험(外的 經驗)’이란 ‘외부적으로 겪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영재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주된 활동이 무엇인지, 주된 활동을 누구와 함께 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 주된 활동

주된 활동, 즉 신호가 울렸을 때 하고 있던 주된 일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신호가 울렸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라는 개방형의 질문으로 측정되었고, 이 주된 활동에 대한 응답은 크게 5가지 범주로 나누었는데, 이는 생산활동(productive activity), 사회활동(social activity), 여가활동(leisure activity), 기초생활활동(maintenance activity), 기타활동(others)이었다. 범주화 작업은 Hektner 외(2007)의 자료를 근간으로 하되 음악영재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2) 함께 한 사람

주된 활동을 함께 한 사람은 ‘주된 일을 할 때 여러분은 누구와 같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측정되었고, 혼자, 어머니, 아버지, 형제나 자매, 다른 친척, 선생님, 친구들이나 내 또래, 잘 모르는 사람들, 기타 등 9개의 보기 중 해당하는 모든 항목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는 분석을 위하여 혼자, 가족/친척, 선생님/동료, 친구, 기타의 5가지로 재범주되었다.

나. 내적 경험

외적 경험처럼 ‘내적 경험(內的 經驗)’의 사전적 정의는 ‘내부적으로 혹은 정신이나 마음으로 겪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영재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할 때 느끼는 flow, 정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1) flow

가) 4채널 flow 상태

flow의 연구 경향은 크게 2가지 흐름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flow 경험에 빠져들 수 있는 강력한 조건으로써 flow를 연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flow는 당면한 행위 또는 과제의 난이도(challenge)와 이를 해낼 수 있는 능력(skill) 수준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일어난다. 본 연구에서는 난이도와 능력 각각의 중앙값(median)을 중심으로(M난이도=3.5180; M능력=3.5343) 고(高), 저(低)로 나누어 그 상태를 2×2로 표현한 4채널 flow 모델([그림 1] 참조)에 기반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문항들은 <표 2>와 같고, 5점 척도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8문항 전체의 신뢰도 계수는 .86이었고, 난이도 4문항과 능력 4문항 각각의 신뢰도 계수는 .72와 .86으로 적절한 수준이었다.

		능력(skill)	
		저	고
난이도 (challenge)	고	불안감 (anxiety)	flow (몰입)
	저	무관심 ³⁾ (apathy)	지루함 (boredom)

[그림 1] 4채널 flow 모델(Massimini, & Carli, 1986)

<표 2> 4채널 flow 상태 측정을 위한 문항

문항 내용	
난이도(challenge)	① 그 일이 얼마나 어렵다고 느끼십니까?, ② 그 일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③ 그 일은 여러분이 도전해 볼 만 합니까?, ④ 그 일은 여러분에게 중요합니까?
능력(skill)	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② 그 일에 여러분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했습니까?, ③ 그 일을 마음먹은 대로 진행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까?, ④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실력이 있습니까?

3) 4채널 flow 모델에서는 ‘apathy’, ‘flow’ 모두 flow 상태를 의미한다. 2가지 모두 즐거운 감정을 느끼는 상태이지만, ‘flow’의 경우 ‘apathy’보다 활동의 난이도 수준이 높고 따라서 더 높은 수준의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좀 더 복합적인 경험이라 할 수 있다(최인수 역, 2004). 하지만 선행연구(김기욱 외, 2005; Csikszentmihalyi, & Csikszentmihalyi, 1988)에서는 ‘apathy’를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고, 하고 있는 일 또한 의도대로 되어가지 않으며,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느끼고, 하고 있는 일이 재미없는 상태로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나) 전반적인 flow 상태: 즐거움(enjoyment)

다른 하나는 flow를 경험할 때의 상태(즐거움의 요소)를 연구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flow 경험에 대한 느낌뿐 아니라 flow 경험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집중도, 자의식 소멸, 자발성, 시간 왜곡, 자기통제, 명확한 목표, 즉각적인 피드백, 자기능력에 맞는 난이도 등 8개의 변수들이 사용되었다(최인수 역, 2004). 이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문항의 내용은 <표 3>과 같고, 문항 전체의 신뢰도 계수는 .82이었다.

<표 3> 즐거움 상태 측정을 위한 문항

문항 내용
① 그 일에 얼마나 잘 집중하고 있었습니까?, ② 그 일을 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고 있었습니까?, ③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였습니까?, ④ 그 일을 하는 동안 시간이 빨리 지나는 것 같았습니까?, ⑤ 그 일은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느끼셨습니까?, ⑥ 그 일의 목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까?, ⑦ 그 일을 하는 동안 여러분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까?, ⑧ 여러분이 노력하면 그 일을 끝마칠 수 있을 것 같았습니까?

2) 정서

정서는 신호가 울린 당시의 느낌 혹은 감정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극단의 대조적 의미를 갖는 10개의 형용사 쌍으로 이루어져 있고 7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긍정적인수록 큰 점수를 갖도록 조정되었다. 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10개의 형용사 쌍은 <표 4>와 같고, 문항 전체의 신뢰도 계수는 .85이었다.

<표 4> 정서 측정을 위한 문항

부정적인	긍정적인	부정적인	긍정적인
슬픈 -----	행복한	힘이 없는 -----	힘이 넘치는
풀이 죽은 -----	활기찬	외로운 -----	어울리고 싶은
창피한 -----	자랑스러운	대충하는 -----	꼭 빠져있는
따분한 -----	신나는	혼돈스러운 -----	명확한
초조한 -----	편안한	경쟁적인 -----	협동적인

4. 분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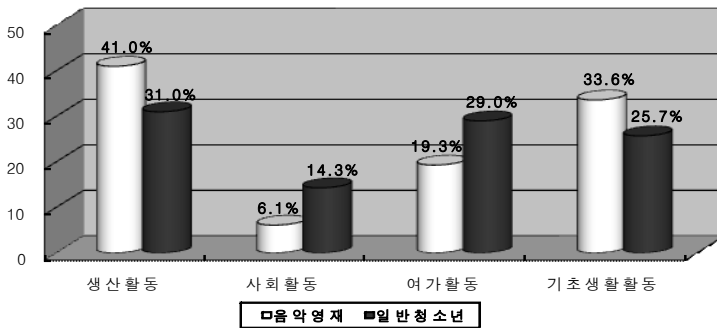
본 연구는 ESF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서 얻어진 외적 경험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외적 경험에 따라 음악영재들이 느끼는 내적 경험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기술통계, t-검증, ANOVA 등의 분석방법을 이용해 알아보았다. 자료 분석은 PASW 18.0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외적 경험

가. 주된 활동

음악영재의 일상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활동은 생산활동(41.0%)이었고, 그 다음으로 기초생활활동(33.6%), 여가활동(19.3%), 사회활동(6.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일반청소년의 일상⁴⁾과 다른 경향이었다. 음악영재와 일반청소년 모두 학생이었기 때문에 생산활동의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그 정도는 차이가 있었으며, 음악영재는 일상의 많은 부분을 생산활동에 소비하고 있지만 일반청소년은 여러 활동에서 고른 비중을 나타냈다.



[그림 2] 음악영재와 일반청소년의 주된 활동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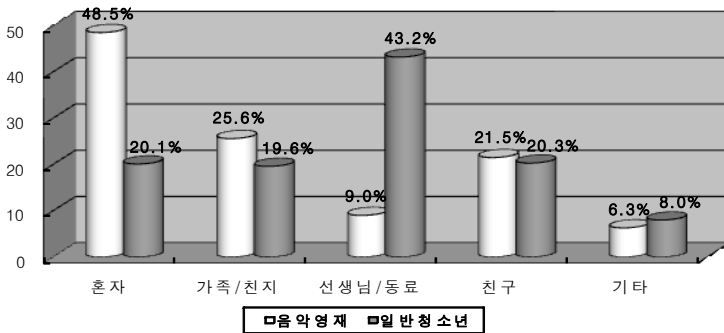
미국의 연구(Csikszentmihalyi et al., 1993)⁵⁾와 비교해 보면 2가지의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하나는 영재가 일반학생보다 생산활동에 많이 참여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학생이 영재보다 사회활동에 많이 참여한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차이점도 나타났는데, 첫째는 영재의 생산활동 참여 비율로, 한국의 음악영재가 미국의 영재보다 일상에서 생산활동에 더 집중된 참여도를 보였다(41.0% > 32.7%). 둘째는 영재의 사회활동 참여 비율로, 미국 영재의 사회활동 참여 비율이 한국의 음악영재보다 2배 이상 높았다(6.1% < 14.6%). 셋째는 여가활동의 비중으로, 미국의 경우 영재의 여가활동 참여 비율이(30.9% > 23.3%), 한국의 경우 일반청소년의 여가활동 참여 비율이 높았다(19.3% < 29.0%).

- 4) 일반청소년의 자료는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2002 추계학술발표회: ESM과 Flow란」 자료집의 내용을 참고한 것으로, 서울의 D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16명을 대상으로 1주일간 진행된 ESM 연구결과이다(남=52, 여=64).
- 5) 미국의 자료는 「Talented teenagers: The roots of success and failure」의 내용을 참고한 것으로, 숙진학습을 받고 있는 9-10학년 학생들 중에서 교사의 추천을 받아 각 분야별(수학, 과학, 음악, 체육, 미술) 영재들을 표집하여 1주일간 진행된 ESM 연구결과이고(N=208), 비교집단인 일반학생의 표집크기는 N=41이었다.

마지막은 기초생활활동의 비중으로, 미국의 경우 일반학생의 기초생활활동 참여 비율이 (21.8% < 29.7%), 한국의 경우 음악영재의 기초생활활동 참여 비율이 높았다 (33.6% < 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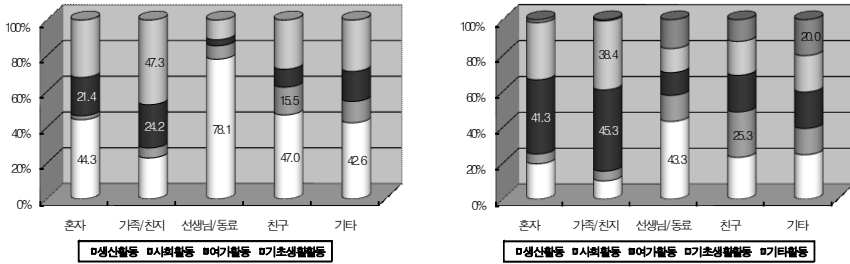
나. 함께한 사람

음악영재들은 주된 활동을 할 때 혼자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48.5%), 가족/친지(25.6%), 친구(21.5%), 선생님/동료(9.0%), 기타(6.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일반 청소년은 선생님/동료와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43.2%), 친구(20.3%), 혼자(20.1%), 가족/친지(19.6%), 기타(8.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음악영재와 일반청소년 간에는 서로 다른 일상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혼자 보내는 시간의 비율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미국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즉, 영재들이 일반학생들보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 한국의 경우는 음악영재와 일반청소년 간에 약 30%의 차이를 보였고, 미국의 경우는 영재와 일반학생 간에 5시간 정도의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었다.



[그림 3] 음악영재와 일반청소년의 주된 활동을 함께한 사람 비교

음악영재가 누구와 있을 때 어떤 활동을 주로 하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혼자 있거나 선생님/동료, 친구, 기타 사람들과 있을 때에는 생산활동에, 가족/친지와 있을 때에는 기초생활활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다. 특히, 선생님/동료와 있을 때에는 약 80%까지 생산활동에 참여하였고, 그 이외의 활동은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여가활동의 경우는 혼자 있거나 가족/친지와 있을 때 20% 이상의 비율을 보였고, 사회활동은 친구와 있을 때 가장 많이 하고 있었다(15.5%).



[그림 4] 음악영재와 일반청소년의 함께한 사람에 따른 주된 활동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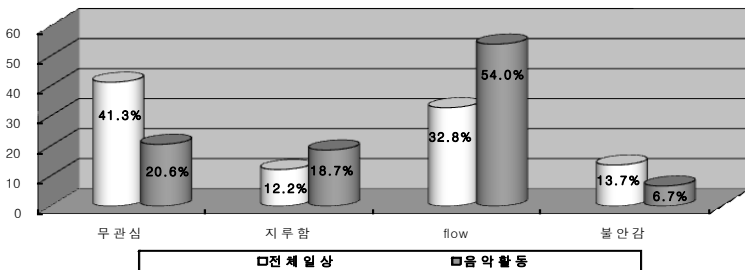
이에 반해 일반청소년은 혼자 있거나 가족/친지와 있을 때는 여가활동을(41.3%; 45.3%), 선생님/동료와 있을 때는 생산활동을(43.3%), 친구와 있을 때는 사회활동을(25.3%), 기타 사람들과 있을 때는 기타활동을(20.0%) 가장 많이 하였다. 음악영재와 비교하면, 혼자 있거나 가족/친지와 있는 경우 음악영재는 생산활동이나 기초생활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반면, 일반청소년은 여가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또한 친구와 같이 있을 때에는 음악영재는 생산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낸 반면, 일반청소년은 사회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결국 음악영재와 일반청소년은 같이 있는 사람에 따라 하는 활동이 달랐고 이로 인해 전혀 다른 경험을 하고 있었다.

2. 내적 경험

가. flow

1) 4채널 flow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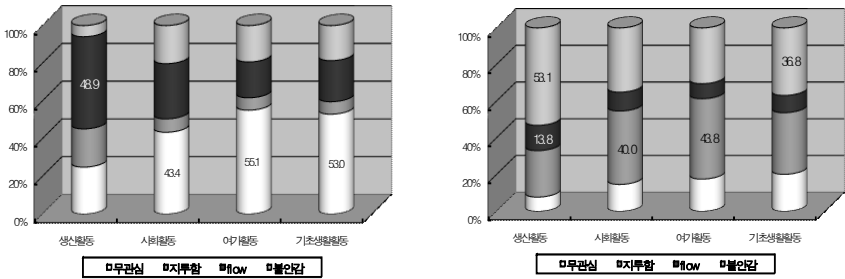
4채널 flow 모델에 따라 음악영재들이 어떠한 일상 경험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전체 일상에서는 무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41.3%), 그 다음으로 flow, 불안감, 지루함의 순이었다. 반면, 자신의 재능과 관련된 음악활동에서는 flow 상태를 보이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54.0%), 그 다음으로 무관심, 지루함, 불안감 순이었다. 이는 음악영재가 일상의 모든 경험에서 flow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로 재능과 관련된 활동에서 최적 경험, 즉 flow를 경험하고 더 많이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그림 5] 참조).



[그림 5] 음악영재의 4채널 flow 상태

가) 주된 활동에 따른 4채널 flow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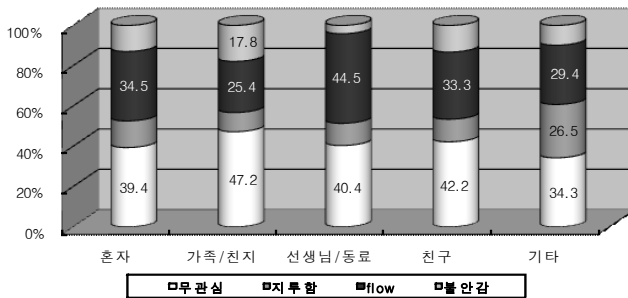
음악영재들이 일상의 주된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4채널 flow 모델 중 어느 상태를 가장 많이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그림 6]을 보면 flow 상태는 생산활동에서 가장 많이 보였고 (48.9%), 사회활동, 여가활동, 기초생활활동에서는 무관심의 상태를 가장 많이 보였다. 이에 반해 일반청소년은 생산활동과 기초생활활동에서는 불안감을,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에서는 지루함을 가장 많이 보였다. 일반청소년들 역시 flow 상태를 가장 많이 보인 활동은 생산활동을 할 때였지만, 그 정도는 음악영재와 큰 차이를 보였다(48.9% > 13.8%).



[그림 6] 음악영재와 일반청소년의 주된 활동에 따른 4채널 flow 상태 비교

나) 함께한 사람에 따른 4채널 flow 상태

함께 있던 사람에 따라 음악영재들의 4채널 flow 상태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먼저, 선생님/동료와 함께 있을 때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서 무관심의 상태를 가장 많이 나타냈다. 가장 높은 비율의 flow 상태를 보고한 경우는 선생님/동료와 있을 때였고(44.5%), 가장 높은 비율의 무관심 상태를 보고한 경우는 가족/친지와 있을 때였다(4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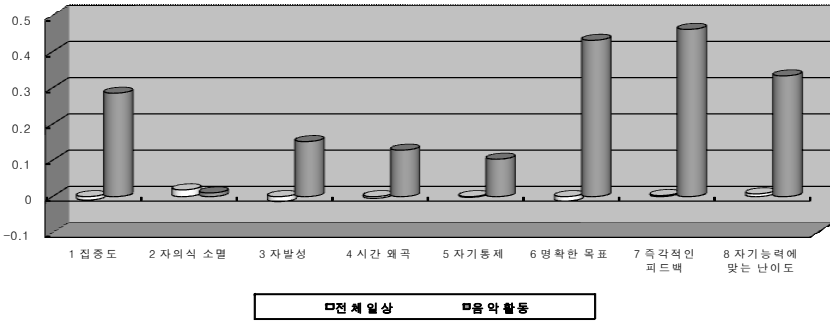


[그림 7] 음악영재의 주된 활동을 함께한 사람에 따른 4채널 flow 상태

2) 전반적인 flow 상태: 즐거움

음악영재들은 일상의 경험에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적절한 피드백을 받으며, 자신의 능력에 맞는 활동을 해 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집중도, 자발성, 시간 왜곡, 자기통

제, 명확한 목표 등의 변수에서는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반면, 자신의 재능분야인 음악활동에서는 모든 변수에서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는 음악영재가 자신의 재능과 관련된 활동을 할 때에는 flow 상태에서 그 활동에 빠져 들어가지만, 일상의 모든 경험에서 flow를 느끼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그림 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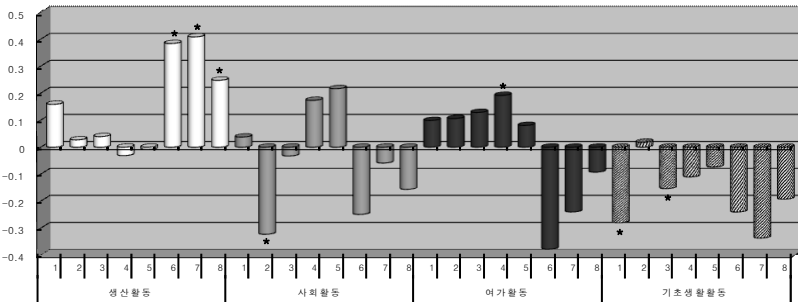


[그림 8] 음악영재의 전반적인 flow 상태

가) 주된 활동에 따른 전반적인 flow 상태

음악영재들은 생산활동을 할 때 목표를 명확하게 알고, 적절한 피드백이 있으며, 자신의 능력에 맞는 난이도를 가진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활동보다 타인을 많이 의식하고 있었고,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활동보다 시간의 흐름을 지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초생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집중하거나 자발적으로 그 활동을 하는 비율이 다른 활동보다 현저히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그림 9] 참조).

음악영재와 일반청소년 간의 비교를 위해, 두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질문한 4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각각의 평균값을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음악영재가 일반청소년보다 더 많이 집중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며, 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마음먹은 대로 진행하고 있었다. 음악영재와 일반청소년 간의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경우는 생산활동을 할 때였으며, 가장 작은 차이를 보인 경우는 여가활동을 할 때였다(<표 5> 참조).



[그림 9] 음악영재의 주된 활동에 따른 전반적인 flow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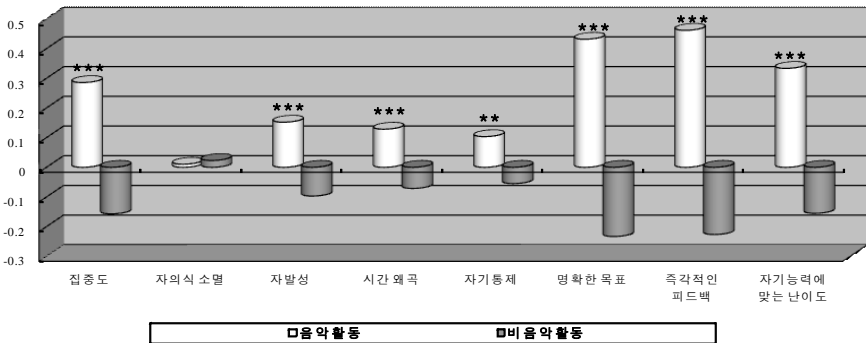
<표 5> 음악영재와 일반청소년의 주된 활동에 따른 전반적인 flow 상태 비교

		음악 영재		일반 청소년				음악 영재		일반 청소년	
생산활동	집중도	3.95	3.45	여가활동	집중도	3.85	3.60				
	자의식 소멸	4.09	3.71		자의식 소멸	4.14	3.88				
	자발성	3.88	3.13		자발성	3.98	3.84				
	자기통제	3.44	3.09		자기통제	3.48	3.32				
사회활동	집중도	3.99	3.36	기초생활활동	집중도	3.62	3.11				
	자의식 소멸	3.83	3.57		자의식 소멸	4.17	3.82				
	자발성	3.96	3.63		자발성	3.81	3.54				
	자기통제	3.80	3.23		자기통제	3.41	3.23				

평균(5점척도)

나) 음악활동과 비음악활동에서 느끼는 전반적인 flow 상태의 차이

음악영재들은 음악활동을 하면서 더 잘 집중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고, 마음먹은 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활동의 목표를 분명하게 알고, 피드백을 적절히 받으며, 스스로 노력하면 활동을 끝마칠 수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정도는 음악관련성과 상관없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자의식 소멸’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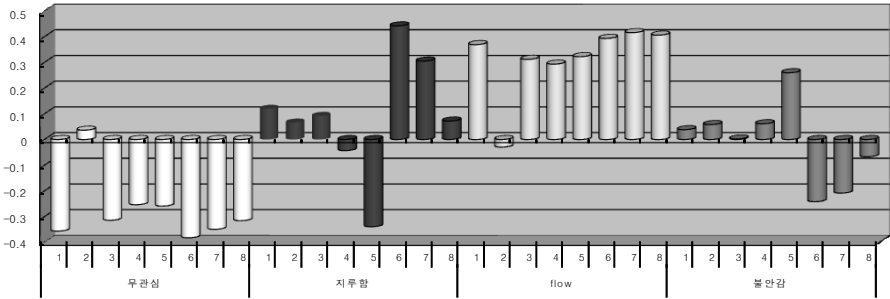


[그림 10] 주된 활동의 음악관련 여부에 따른 전반적인 flow 상태의 차이

다) 4채널 모델에 따른 전반적인 flow 상태

4채널 flow 상태에 따라 경험하는 전반적인 flow 상태는 어떠한지 알아보았다. 먼저, 무관심 상태에서는 대부분의 변수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났지만, flow 상태에서는 거의 모든 변수에서 긍정적으로 보고되었다. 반면에 지루함이나 불안감의 상태에서는 각 변수별로 긍정적, 부정적 반응이 같이 나타났다. 특히, ‘명확한 목표’, ‘즉각적인 피드백’, ‘자기 능력에 맞는 난이도’의 변수에서는 지루한 상태와 불안한 상태 간에 정반대의 경향을 보였다([그림 11] 참조). 이는 음악영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활동의 난이도보다 높은

경우에 flow에 빠질 수 있는 조건의 충족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그림 11] 음악영재의 4채널 flow에 따른 전반적인 flow 상태

음악영재와 일반청소년을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음악영재가 flow에 더 깊이 빠지고 있었다(<표 6> 참조). 특히, flow 상태에서는 ‘자의식 소멸’, 즉 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정도에서 음악영재와 일반청소년 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청소년에 비해 음악영재가 flow 상태에서 활동에 완전히 빠져들어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특성을 더 많이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두 집단 모두 flow 상태일 때 가장 긍정적이고, 무관심 상태일 때 가장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음악영재의 경우 불안감 상태가 지루함 상태보다 긍정적이었지만, 일반청소년의 경우는 반대의 경향을 나타냈다.

<표 6> 음악영재와 일반청소년의 4채널 flow에 따른 전반적인 flow 상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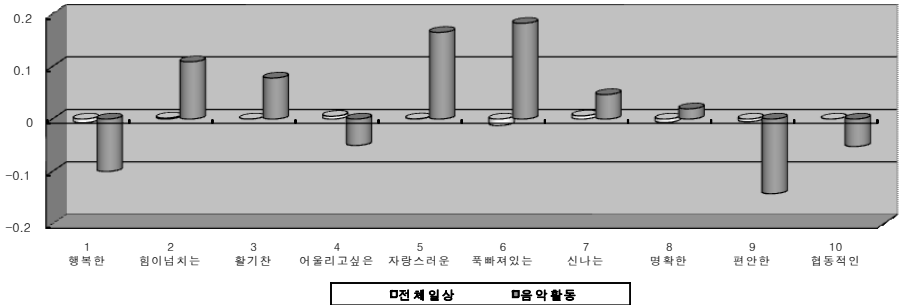
		음악 영재	일반 청소년			음악 영재	일반 청소년
무관심	집중도	3.24	2.80	flow	집중도	4.42	4.17
	자의식소멸	4.00	3.77		자의식소멸	4.25	3.65
	자발성	3.29	2.99		자발성	4.45	4.03
	자기통제	2.96	2.71		자기통제	4.14	3.65
지루함	집중도	3.92	3.37	불안감	집중도	4.05	3.46
	자의식소멸	4.15	3.72		자의식소멸	4.10	3.62
	자발성	4.04	3.59		자발성	4.11	3.40
	자기통제	2.81	3.32		자기통제	3.87	3.12

평균(5점척도)

나. 정서

음악영재는 일상의 전체 경험에서는 두드러진 정서적 특징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의 재능과 관련된 음악활동을 하면서는 힘이 넘치고, 활기차며, 스스로가 자랑스럽고, 활동에 푹 빠져있으며, 신나고, 혼돈스럽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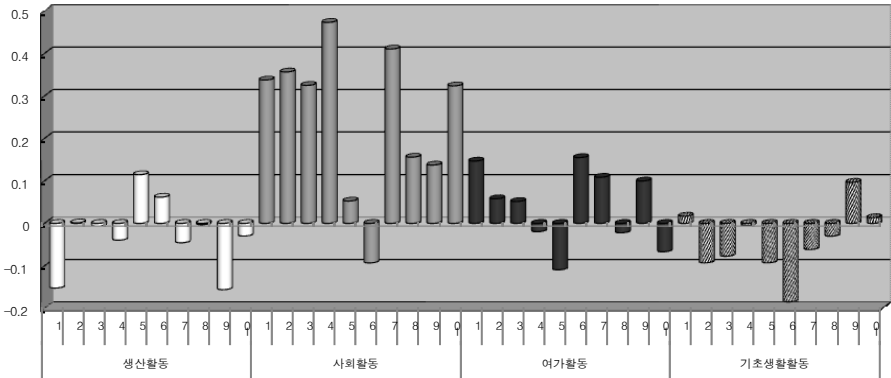
편안하지도 않으며, 경쟁적이라는 생각 역시 가지고 있었다.



[그림 12] 음악영재의 정서

1) 주된 활동에 따른 정서

음악영재들은 일상에서 하는 주된 활동 중 사회활동을 할 때 가장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고 있었다.



[그림 13] 음악영재의 주된 활동에 따른 정서

음악영재와 일반청소년의 정서를 비교해 보면, 대체로 음악영재가 더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특히, 생산활동을 하면서 음악영재가 일반청소년보다 활동에 폭 빠져서 신나고 활기차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었다(<표 7> 참조). 이는 미국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로, 미국에서는 영재들이 일반학생에 비해 더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음악영재와 미국의 영재들이 느끼는 정서의 평균값은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한국과 미국의 일반학생들이 보이는 정서의 평균값

에 차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일반청소년이 미국의 일반학생보다 일상에서 훨씬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경향의 차이인 것이다(<표 8> 참조).

<표 7> 음악영재와 일반청소년이 생활활동에서 느끼는 정서 비교

	음악 영재	일반 청소년		음악 영재	일반 청소년
슬픈 - 행복한	4.75	4.43	힘이 없는 - 힘이 넘치는	4.33	3.73
풀이 죽은 - 활기찬	4.57	4.11	외로운 - 어울리고 싶은	4.32	4.33
창피한 - 자랑스러운	4.52	4.26	대충하는 - 푹 빠져있는	4.76	3.98
따분한 - 신나는	4.43	3.77	혼돈스러운 - 명확한	4.22	4.01
초조한 - 편안한	4.19	4.13	경쟁적인 - 협동적인	4.11	4.01

평균(7점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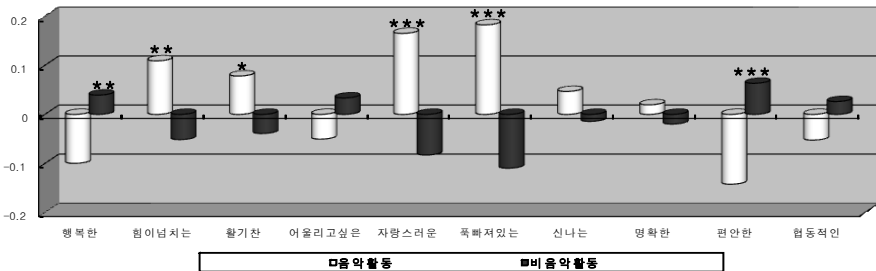
<표 8> 한국과 미국의 영재와 일반학생이느끼는 정서 비교

	한국		미국	
	음악영재	일반청소년	영재	일반학생
슬픈 - 행복한	4.89	4.69	4.87	5.15
힘이 없는 - 힘이 넘치는	4.30	3.92	4.41	4.69
풀이 죽은 - 활기찬	4.58	4.25	4.25	4.46
외로운 - 어울리고 싶은	4.32	4.36	4.59	5.06
따분한 - 신나는	4.48	4.18	4.10	4.43

평균(7점척도)

2) 음악활동과 비음악활동에서 느끼는 정서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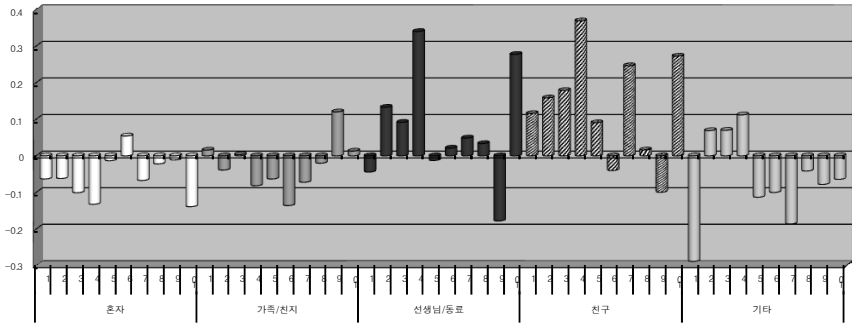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음악영재들은 비음악활동을 할 때보다 음악활동을 하면서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고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음악활동을 하면서 힘이 넘치고, 활기차며, 스스로 자랑스럽고, 활동에 푹 빠져있는 듯한 정서를 느끼고 있었다. 반면에, 비음악활동을 할 때는 음악활동을 할 때보다 행복하고, 편안하게 느끼고 있었다. 이는 음악영재들이 음악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부담감이 정서로 표현된 결과로 보이며, 음악활동이 즐기 위한 것만이 아닌 긴장되고 서로 경쟁을 해야만 하는 활동으로 지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4] 주된 활동의 음악관련 여부에 따른 정서의 차이

3) 함께한 사람에 따른 정서

음악영재들은 친구와 같이 있을 때 가장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고 있었다. 음악영재와 일반청소년이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정서를 살펴보면, 음악영재가 일반청소년보다 ‘경쟁적인-협동적인’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나타냈다. 특히, 음악영재는 일반 청소년보다 혼자 있을 때 하는 활동에 폭 빠져있고, 힘이 넘친다고 보고하였다.



[그림 15] 음악영재의 함께한 사람에 따른 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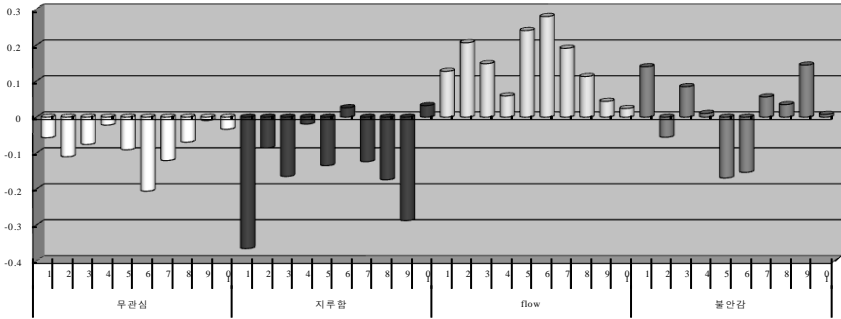
<표 9> 음악영재와 일반청소년이 혼자 있을 때의 정서 비교

	음악 영재	일반 청소년		음악 영재	일반 청소년
슬픈 - 행복한	4.70	4.68	힘이 없는 - 힘이 넘치는	4.12	3.78
풀이 죽은 - 활기찬	4.37	4.10	외로운 - 어울리고 싶은	4.10	4.05
창피한 - 자랑스러운	4.28	4.15	대충하는 - 폭 빠져있는	4.75	4.29
따분한 - 신나는	4.31	4.13	혼돈스러운 - 명확한	4.15	3.93
초조한 - 편안한	4.34	4.24	경쟁적인 - 협동적인	3.99	4.01

평균(7점척도)

4) 4채널 모델에 따른 정서

4채널 flow 상태에서 어떠한 정서를 느끼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가장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는 경우는 flow 상태였고, 가장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는 경우는 지루함 상태이었다. 대체로 난이도가 낮은 경우, 즉 무관심이나 지루함의 상태에 있을 때 부정적인 정서를 보고하였다. 또한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 어려운 경우, 즉 불안감 상태에서는 보다 긍정적인 정서를 보였다.



[그림 16] 음악영재의 4채널 flow에 따른 정서

음악영재와 일반청소년을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음악영재가 더 긍정적인 정서를 나타냈고, 특히, ‘대충하는-폭 빠져있는’ 변수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든지 일반청소년보다 음악영재가 그 활동에 폭 빠져서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4채널에 따른 정서는 flow 상태일 때 가장 긍정적이고, 무관심 상태일 때 가장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전반적인 flow 상태의 결과에서와 같이, 음악영재는 불안감 상태가 지루함 상태보다 긍정적이었으며, 일반청소년은 지루함 상태가 불안감 상태보다 긍정적이었다. 또한 4채널 중 flow 상태에서 음악영재와 일반청소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음악영재가 flow 경험을 하면서 더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표 10> 참조).

<표 10> 음악영재와 일반청소년의 4채널 flow에 따른 정서 비교

	음악 일반 영재 청소년		음악 일반 영재 청소년		음악 일반 영재 청소년		음악 일반 영재 청소년				
행복한	4.58	4.34	행복한	4.40	4.77	행복한	5.40	5.06	행복한	5.00	4.65
힘이넘치는	4.03	3.64	힘이넘치는	3.98	3.94	힘이넘치는	4.81	4.36	힘이넘치는	4.17	3.88
활기찬	4.31	3.94	활기찬	4.25	4.26	활기찬	5.02	4.68	활기찬	4.67	4.25
어울리고	4.06	4.09	어울리고	4.34	4.39	어울리고	4.61	4.64	어울리고	4.42	4.37
무심	4.11	4.16	지심	4.09	4.18	f	4.87	4.47	불심	4.22	4.20
관 자랑스러운	4.21	4.05	루 자랑스러운	4.71	4.20	l	5.36	4.81	안 자랑스러운	4.61	4.19
심 폭빠져있는	4.15	3.94	함 폭빠져있는	4.34	4.18	o	4.94	4.70	감 폭빠져있는	4.46	4.12
신나는	4.02	4.01	신나는	3.93	4.01	w	4.67	4.37	명확한	4.28	3.94
명확한	4.22	4.13	편안한	3.92	4.25	편안한	4.74	4.58	편안한	4.69	4.20
편안한	4.07	4.11	협동적인	4.09	4.11	협동적인	4.25	4.12	협동적인	4.16	4.10

평균(7점척도)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음악영재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일상을 어떻게 보내고, 일상의 경험에서 어떻

게 느끼고 있는지 삶의 질적인 차원에서 살펴보고, 그들을 심층적으로 이해하여 상담이나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일반청소년과의 비교, 그리고 미국의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통한 음악영재의 특징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영재는 일상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고, 그 시간에 자신의 재능 발현을 위한 준비 시간을 많이 갖고 있으며, 긍정적인 내적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는 미국의 연구에서도 나타난 결과이며, 혼자 보내는 시간의 관리가 영재성의 발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대로 자신의 재능을 계발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자 하는 영재성이 일상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있다. 즉, 음악영재가 가진 영재성이 그들의 일상 경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한 일상의 경험이 쌓여서 영재성의 계발이 이루어지는 순환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둘째, 음악영재는 일상에서 일반청소년에 비해 긍정적인 내적 경험을 보고하고 있었다. 특히 음악영재는 무관심과 flow를, 일반청소년은 지루함과 불안감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flow 4채널 모델에서 무관심과 flow는 모두 난이도와 능력 간에 균형을 이룬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영재는 일상에서 활동의 난이도에 맞게 필요한 수행 능력을 조절하여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반청소년은 활동의 난이도와 수행 능력 간의 균형 상태를 잘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Csikszentmihalyi 외(1993)의 연구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영재는 일반학생에 비해 평범한 활동에는 덜 집중하는 반면, 학교수업이나 공부 등을 할 때는 높은 수준의 집중도를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즉, 영재는 활동의 복잡성에 따라 주의력의 구조를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연구에서는 영재들이 일반학생에 비해 부정적인 내적 경험을 하고 있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의 음악영재들과 미국의 영재들이 보이는 내적 경험은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향이 나온 것은 일반학생들이 느끼는 내적 경험의 수준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의 교육 현상에 대해 2가지 해석을 할 수 결과인데, 하나는 ‘영재 교육’이 대상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교육 현상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이지 못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4채널 flow 모델에서 음악영재와 일반청소년 모두 무관심 상태에서 가장 flow를 느끼지 못하고, flow 상태에서 flow에 가장 깊이 빠져들었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김기욱 외, 2005; Csikszentmihalyi, & Csikszentmihalyi, 1988), 활동이 너무 쉬워서 그것을 해 나가기 위한 능력이 거의 필요 없는 편안한 상태가 아닌,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적절한 난이도의 활동이 주어졌을 때 최적의 경험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능력보다 활동의 난이도가 높은 불안감 상태에서 일반청소년은 flow에 빠지지 못하는 반면, 음악영재는 flow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는 ‘영재’라는 낙인(label)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로, 주변의 지지를 많이 받아온 음악영재는 어렵고 불안한 상태에서도 부정적으로 반응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넷째, 음악영재라 하더라도 일상의 모든 활동에서 flow를 경험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만족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의 재능과 관련된 음악활동을 하면서 flow에 빠지고,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며, 만족하고 있었다. 하지만 음악활동을 통해 flow를 경험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이 속한 동양 문화권의 특성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동양의 문화는 유교주의(Confucianism)와 집단주의(collectivism)로 대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상의 영향으로 수직적 관계와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다(성은현, 2006; Sawyer, 2006). 서양의 문화는 개체를 배경으로부터 분리하여 보지만, 동양에서 개인은 전체 사회의 부분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행동도 주변 상황에 따라 혹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즉, 어떠한 활동에 몰입하고 있을 때에도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생각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영향과 함께 사회적으로 설정된 기준에 의한 ‘영재’라는 낙인은 즐거운 행동을 할 때조차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 지 걱정하는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음악영재는 일상에서 다른 활동보다 음악활동을 하면서 깊은 flow를 경험하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이는 ‘행복감’이라는 것이 활동에 완전히 빠져있을 때 즉각적으로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활동을 통해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얻은 이후에 오는 정서이기 때문이다. flow 경험이 발생하는 순간이 반드시 유쾌한 것은 아니며, 매우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다. 극도로 난해한 문제들과 씨름하는 상황, 즉, 해결하여 만족감을 얻기 전의 상황에서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음악영재는 스트레스를 주는 음악활동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기꺼이 투입하여 자기 나름의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자 한다. 그리고 외과의사가 어려운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난 후 만족감을 얻는 것처럼, 고된 연습과 훈련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음악을 공유하게 되었을 때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경험들을 하나둘씩 축적하면서 스스로 인생의 내용을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 즉, 행복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심현식 역, 2006; 최인수 역, 2004).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음악영재의 특징을 통해 교육적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는 음악영재교육뿐 아니라 일반교육에서도 적용 가능한 내용이다.

첫째, 교육과정에서 기대와 칭찬의 힘, 즉, 자기충족 예언이 중요하다. 한국의 음악영재들은 그들이 가진 능력에 대한 주변의 기대가 스스로에 대한 믿음으로 작용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자신의 능력보다 높은 난이도의 활동이 주어진 불안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 이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기대나 칭찬이 학생의 행동과 지적 발달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는 ‘피그말리온 효과(Pygmalion effect)’를 반영하는 것이며,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성취 지향적 가치를 체득하지 못하면 이러한 가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다른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심재관 역, 2003; Cloward & Jones, 1963).

둘째, 수월성 교육의 범위를 영재교육뿐 아니라 일반교육까지 확대·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월성 교육이란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계발하기 위해 그 능력과 적성 분야를 고려해서 ‘맞춤식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자신의 능력에 맞게 잘 짜인 맞춤식 교육을 받고 있는 음악영재의 내적 경험이 일반청소년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특히 생산활동에서 두드러졌으며 일반교육 현장에서 자기 관심사를 찾는 시간과 함께 현재 능력에 맞는 적절한 난이도의 활동을 통해 교육과 주변의 격려가 주어진다면 수월성교육의 긍정적 효과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모든 음악영재가 동일한 기간에 반응한 자료를 분석한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수업을 듣고 있는 연구대상자의 특성상 그들을 한꺼번에 모두 한 자리에 모이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오류이지만, 모든 대상자가 동일한 1주일의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본 연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추후에는 동일한 특성을 가진 연구대상을 표집하여 동일한 기간 동안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인 음악영재의 일상 경험을 일반청소년의 자료와 비교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에 대해 상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분야특수적인 영향으로 인해, 음악영재들이 보이는 경향이 ‘영재’의 특성에 의한 것인지, ‘음악분야’의 특성이 영향을 미친 것인지 판단내리기 힘들다. 추후연구에서는 음악을 전공하지만 영재성은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또한 음악 이외의 다른 분야 영재들의 자료를 추가 수집하여 본 연구결과의 해석을 좀 더 명확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음악영재로 판별되어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상태와 만족도를 살펴보고 그들을 위한 교육과정이나 상담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음악영재들이 가진 영재성이 어떻게 발휘되어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추후에는 음악영재가 가진 능력과 그들의 발달과정, 환경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들을 통해 음악영재성 발현과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와 다른 시기에 실시된 일반청소년 대상의 연구결과와 직접 비교를 통한 해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연구결과에서 음악영재와 일반청소년 간의 삶의 질적인 차이, 즉 연구대상 간의 차이 이외에 연구기간의 차이에 의한 영향도 있을 수 있다. 이에 앞으로 본 연구결과와 비교 가능한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한국과 미국의 연구결과 간의 직접 비교를 통한 해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먼저, 미국의 자료 역시 영재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실시 시기에 8년의 차이가 있었다. 물론 미국과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 역시 차이가 있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결과 해석에서 연구대상 간의 차이 이외에 연구기간의 차이에 의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수학, 과학, 음악, 체육, 미술의 5가지 분야의 영재들이 보인 결과를 종합해서 보여주고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음악분야의 영재들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영재들이 보인 삶의 경험과 본 연구의 음악영재들이 보인 삶의 경험이 직접 비교되는 것에는 분야특수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미국과 본 연구에서 실시된 ESF의 내용이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flow 경험, 정서의 모든 하위변수를 고려하여 비교할 수 없었다. 추후에 좀 더 정확하고 풍부한 비교문화연구를 위해서 한국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영재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본 연구결과와 함께 비교·종합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기욱, 김순옥, 황선진, 이수진, 현은자, 최인수, 유현정 (2005). ESM을 통해 본 대학생의 주관적 삶의 질: 정서, 인지적 효율성, 만족도의 측면에서. **대한가정학회지**, 43(2), 203-229.
- 박성익 (2002). 미국의 영재교육. 구자억 외(편). **동서양 주요 국가들의 영재교육**. (pp. 1-86) 서울: 문음사.
- 박성익, 조석희, 김홍원, 이지현, 윤여홍, 진석언, 한기순 (2003). **영재교육학원론**. 서울: 교육과학사.
- 성은현 (2006). **문화와 창의성**. 인하대학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 아시아교육의 기적; 가정, 학교 그리고 문화적 맥락에서의 아동 발달.
- 이수진, 유현정 (2002). **ESM을 이용한 청소년의 삶의 질 연구**. 2002 추계학술발표회 자료집. 서울: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 이종규 (2006).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교육과학사.
- 조명환, 김정오, 권석만 (1994). 청소년의 삶의 질. **서울대학교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6(2), 51-94.
- 최인수, 김순옥, 황선진, 이수진 (2003). 경험표집법을 이용한 고등학생들의 생활경험에 관한 연구: 주된 활동과, 활동 공간 및 플로우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1(8), 213-227.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loward, R. A., & Jones, J. A. (1963). Social class: Educational attitudes and participation. In A. H. Passow (Ed.), *Education in depressed area* (pp. 190-216). NY: Bureau of Publications,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Csikszentmihalyi, M. (2004). **Flow: 미치도록 행복한 나를 만나다**. [최인수 역]. 서울: 한울림. (원본출간년도: 1990).

- Csikszentmihalyi, M. (2006). **몰입의 경영**. [심현식 역]. 서울: 황금가지. (원본출간년도: 2004).
- Csikszentmihalyi, M., & Csikszentmihalyi, I. S. (Eds.) (1988). *Optimal experience: Psychological studies of flow in consciousnes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sikszentmihalyi, M., & Rathunde, K. (1993). The measurement of flow in everyday life toward a theory of emergent motivation.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Motivation*, 40, 57-97.
- Csikszentmihalyi, M., Rathunde, K., & Whalen, S. (1993). *Talented teenagers: The roots of success and failure*.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Gabarino, M. S. (1994). **문화인류학의 역사: 사회사상에서 문화의 과학에 이르기까지**. [한경구, 임봉길 역]. 서울: 일조각. (원본출간년도: 1983).
- Hektner, J. M., Schmidt, J. A., & Csikszentmihalyi, M. (2007). *Experience sampling method: Measuring the quality of everyday life*. CA: Sage Publications.
- Jones, E. (1956). The nature of genius. In E. Jones (Ed.), *Sigmund freud: Four centenary addresses* (pp. 3-34). NY: Basic Books.
- Massimini, F., & Carli, M. (1986). Selezione psicologica e flusso di coscienza. In F. Massimini, & P. Inghilleri (Eds.), *L'esperienza quotidiana* (pp. 65-84). Milan: Franco Angeli.
- Newland, T. E. (1976). *The gifted in socioeducational perspectiv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Okun, M. A. (1987). Life satisfaction. In G. L. Maddox (Ed.), *Encyclopedia of aging* (pp. 399-401). NY: Springer.
- Rosenthal, R., & Jacobson, L. (2003). **피그말리온 효과: 기대와 칭찬의 힘**. [심재관 역]. 경기: 이퀄리오. (원본출간년도: 2003).
- Savin-Williams, R. C. (1987). *Adolescence: An ethological perspective*. NY: Springer-Verlag.
- Sawyer, R. K. (2006). *Explaining creativity: The science of human innovation*. NY: Oxford University Press.
- Tannenbaum, A. J. (2004). **영재교육: 심리학과 교육학에서의 조망**. [김태련, 김정휘, 조석희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원본출간년도: 1983).
- Terman, L. M. (1925). *Genetic studies of genius: Vol. 1. Mental and physical traits of a thousand gifted childre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Witty, P., & Lehman, H. C. (1930). Nervous instability and genius: Some conflicting opinion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24, 486-497.

= Abstract =

A Study for Quality of Life in Musically Talented Students Using Experience Sampling Method

Hyun-joo Lee

SungKyunKwan University

Insoo Choe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quality of life of musically talented students as measured by their external experiences (e.g., activities, companions) and internal experiences (e.g., flow, emotion).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33 musically talented students (10 males, 23 females) aged 13 to 19. Study data were collected for 7 consecutive days using the Experience Sampling Method (ESM), which employs a cellular-phone as a signaling devic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n response to the 1625 random signals, musically talented students reported that 40.9% of their time was spent on productive activities. An additional 33.4% of time was used for maintenance activities and the rest of their time was spent on leisure/social activities. Also, musically talented students reported that 48.5% of their time was spent alone. When they were alone, they spent a lot of time engaging in productive activities (44.3%). Second, in order to measure the flow of their life, two methods were used. One used a 4-channel flow model (i.e. apathy, boredom, flow, anxiety) and the other used 8 dimensions and conditions of the flow experience (i.e. concentration, self-consciousness disappears, action and awareness merge, distorted sense of time, freedom from worry about failure, clear goals, immediate feedback, balance between challenges and skills). According to the former, when engaged in music-related activities, musically talented students usually reported flow (54.0%), while they felt apathy (41.3%) for daily routines activities. According to the latter method, musically talented students experienced flow for most productive activities, while they experienced flow least for maintenance activities. Emotional variables of ESF are comprised of 10 semantic scales (i.e. happy-sad, strong-weak, active-passive, sociable-lonely, proud-ashamed, involved-detached, excited-bored, clear-confused, relaxed-worried, cooperative-competitive). Musically talented students reported experiencing the most positive emotion for social activities and experiencing the most negative emotion for

maintenance activities. Results of this study assert that musically talented students had to trade off immediate enjoyment for developing their special gifts. They could not afford as much time for socializing with friends, and they had to spend more time alone compared to their peers without such gifts. Consequently, they were found to deprive themselves of the spontaneous good times that teenagers usually thrive on. They were helped in this respect by their autotelic personality traits, especially their strong need for achievement and endurance. The downside, however, is that the moment-to-moment quality of their moods suffered. The argument concerning musically talented students applies for all adolescents. The choices that talented students must make between immediate gratification and long-term development, and between solitude and companionship, are the same choices every young person must make, regardless of her or his level of talent. All of us have gifts that are potentially useful and worthy of being appreciated. But to develop these latent talents we must cultivate them, and this takes time and the investment of mental energy. The lifestyle that musically talented students develop can show us some of the choices all of us must make in order to cultivate our gifts.

Key Words: Experience Sampling Method(ESM), Musically talented students, Quality of life, External experiences, Internal experiences

1차 원고접수: 2011년 2월 8일
수정 원고접수: 2011년 3월 14일
최종 게재결정: 2011년 3월 21일